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학교도서관 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pplying Havruta metho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 for
School Library

최은비,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choieb9519@gmail.com

김예진,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hjib50@naver.com

박지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o216144@naver.com

권선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ykw@hnu.kr

EunBi Choi,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

YeJin Kim,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

Jiyoung Park,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

Sumyoung Kwo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창의적 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어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는 하브루타가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 주어진 시수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하브루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하브루타 모델을 적용한 수업모형을 제안한다.

1. 서론

1.1 하브루타의 정의 및 도입의 필요성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2015년 핵심역량은 모든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요구한다(교육부, 2016). 이는 미래 과학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말한다.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 중심 교수 및 학습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기초지식 역량을 축적할 독서 능력 개발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하브루타 수업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업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한다. 특히 학생과 학생 사이의 질문과 대화, 토론과 논쟁, 다양한 답변의 탐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다(EBS다큐프라임, 2014).

시대에 맞는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도 독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하브루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

경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토론의 가치를 알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하브루타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하브루타의 등장배경

하브루타란 ‘친구, 짝, 파트너’를 가리키는 ‘하베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 부모나 친구, 선생님과 늘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유대인들의 생활방식에 의해서 ‘짝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즉, 하부르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부르타는 유대인이 3500년 동안 고수한 전통 학습법으로, 난해한 토라, 토론집인 탈무드를 사람들이 익히고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대화형, 토의·토론 형식으로 배우는 하브루타가 등장하였다. 하브루타는 현재 이스라엘의 도서관인 ‘예시바’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대인의 가정교육법이다(김명진, 2014). 국내에서는 하브루타교육협회, 하브루타미래포럼 등의 단체가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와 학습법을 소개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행동과학연구소(National Training Lab)에서 발표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는 학습 후 24시간 후에 남아 있는 비율을 공부 방법마다 따라 피라미드로 나타낸 것이다. 이 피라미드에 따르면 강의 전달 설명은 5%의 효율성에 불과하지만, 직접 해보는 것은 75%,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90%의 효율성을 갖는다(최원일, 2015). 따라서 친구와 토론하고 직접 체험하며 소통하는 학습법인 하브루타는 국내의 기본적인 교육제도에 비해 높은 학습 효율을 갖는다. 이러한 효과가 대두되어 하브루타가 주목받게 되었다.

2.2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의 하브루타 연구는 도서관적 측면보다 교수법, 수업 모형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도서관적 측면에서는 도서관의 공간과 관련된 하브루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재영(2008)은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중심 공간을 지향하는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개념의 도입을 통한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협력, 활동적 학습, 즉각적 피드백과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정보원의 이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정재영, 2008).

서울 신흥초등학교는 하부르타 원리를 적용한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전체 내용을 혼자 이해해야 한다는 학습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둘째, 각자가 맡은 부분을 조합하면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서로 가르쳐주기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서울신흥초, 2016).

허영주(2016)는 하브루타 활용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는 토론 중심 수업보다 하브루타 활용 수업이 학생의 집단창의성을 더 많이 향상시키고,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향상된 지식이 창의성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허영주, 2016).

2) 국외 선행연구

국외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적 측면에 비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하브루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외의 도서관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정보 및 학습 공유를 강조한 연구가 국내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Segal(2003)은 하브루타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연구 및 창의력 고취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브루타의 목적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업 방법과 도구를 마련하는 역량에 대해 강조하였다(Segal, 2003).

Beatty(2008)는 도서관이 파트너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과 진정한 사회적 학습 공간을 배울 수 있으며, 창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Beatty, 2008).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보다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학습자가 창의력 향상과 수업의 질 관점에서 하브루타 방식에 속해있는 토론 방식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하브루타 도서관에서의 활동과 사서의 역할을 도출하였고 기존의 하브루타교육 수업모형 및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과 연계 하브루타 수업모형을 제안 하였다.

3.1 하브루타 적용 사례 분석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으로, 질문을 통해 1차적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 2차적으로 학습한다(하브루타수업연구회, 2014).

하브루타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Segal, 2003; 정재영, 2008; 서울신흥초, 2016)를 분석한 바 공통적으로 하브루타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공간 활용과 학습 활동, 하브루타 도서관에서 관리자 즉, 사서의 역할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브루타 도서관을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협력과 활동이 증진, 빠른 피드백이 필요하며 디지털정보,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자 학습한 내용을 다른 이용자와 토의하면서 하브루타 도서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서는 적절한 환경 제공과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수업 도구를 연구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사서의 역할과 더불어 사서가 개입할 수 있는 교과 연계 하브루타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3.2 하브루타를 진행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공간적 역할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경기도교육청, 2016) 대체로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학교도서관 내부는 공간 규모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으므로 특히 하브루타 교육을 진행할 때, 학교도서관 내부에 있는 인적·물적인 모든 자원들이 직접적으로 한눈에 들어와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포용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3.3 하브루타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공간 조성, 자료제공, 프로그램 기획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3.3.1 공간조성

도서관은 하브루타에서 강조되는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운영하는 사서는 Information Commons 공간운영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미디어활용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3.2 자료제공

하브루타 교육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과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김광남, 2001). 세인트 존스 대학은 학생들끼리의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제공하는 공통된 공유수단이 되는 100권의 도서를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조한별, 2014).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위한 대화의 주축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3.3 프로그램 기획

박정애(2013)은 학교도서관의 독서토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국어교사가 독서토론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전문성과 독서교육 수업진행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박정애, 2013). 이처럼, 독서교육 전문성이 높은 사서교사가 하브루타 프로그램 기획을 맡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동등하게 역할을 분배하여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방향이 하브루타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결과

4.1 하브루타도서관 수업모형

위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쳐 도출한 교과 연계 하브루타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하브루타 수업 모형

수업방법	수업과정	연계교과
질문 중심 하브루타	질문 만들기 - 모둠 토론하기 - 발표하기 - 쉬우르	과학
논쟁 중심 하브루타	논제 조사하기 - 모둠토론하기 - 발표하기 - 쉬우르	사회, 도덕
비교 중심 하브루타	비교 대상 정하기 - 조사하기 - 질문 만들기 - 모둠토론하기 - 발표하기 - 쉬우르	국어, 사회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내용 공부하기 - 짝꿍 가르치기 - 배우면서 질문하기 - 역할 바뀐 가르치기 - 배우면서 질문하기 - 쉬우르	수학, 과학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 모둠원과 문제 정하기 - 문제 발표하기 - 쉬우르	국어, 사회, 과학

각 수업방법은 연계교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질문 중심 하브루타는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하면서 가장 좋은 질문을 뽑아 발표를 한 후 교사가 정리를 하는 방법이며 이를테면 과학교과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쟁 중심 하브루타는 논제를 정하고 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해 토론을 하면서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는 방법이므로 사회과 교과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비교 중심 하브루타는 책이나 교과서에서 비교 대상을 정하고 대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온 것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수업이다.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는 친구에게 가르치고 배울 범위를 정한 뒤에 그것을 학습해오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이다. 마지막으로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는 정해진 범위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친구와 토론해 다듬어 발표한 후에 교사가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공유하는 수업이다. 도서관에서는 실제수업을 진행할 때 사서교사의 기획주도하에 하브루타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연계교과 및 교과 단원의

특성 및 핵심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도서관 자원과 공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수업 모형에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역할과 능력, 그리고 협력이 강조됨은 당연한 일이다.

4.2 기대효과

대화를 통해 수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하브루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으며, 능동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창의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써 창의력이 강조되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정규 교과과정으로는 인력과 시간,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 반면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분명 공간 활용의 이점이나 교육시간의 자율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사서교사는 독서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201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교육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 서울; 교육부.
 김광남. (2001).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공동구매 게시판(BBS)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명진. (2014). 배움 중심수업을 꿈꾸는 ‘하브루타 수업법’, 한은선 선생님과의 만남.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07_3&wr_id=42

박정애. (2013). 독서토론 활성화가 학교도서관 이용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서교육학회지, 1(2), 153-182.
 서울신흥초등학교. (2016). 2016년 늘찬배움 창의·인성 수업연구회 연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성수, 정희란, 김석화 외. (2014). 2014 창의·인성 하브루타 수업연구회 보고서. 서울; 하브루타수업연구회.
 정재영. (2008).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의 도입을 통한 학교도서관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67-289.
 조한별. (2014). 말 안하면 ‘쫓겨나는 대학’ 진짜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3819
 최원일. (2015). 질문이 있는 교사, 질문이 있는 학생. 서울; 서울봉은초등학교.
 허영주. (2016). 하브루타 활용 수업이 개인 및 집단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0(3), 73-106.
 Beatty, Susan. (2008). Academic Libraries in Transformation to Learning Centers: Information Commons or Learning Common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p 9-14.
 EBS 다큐프라임. (2014).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5부.
<https://www.youtube.com/watch?v=nttlAfVQT6w>
 Segal, Aliza. (2003). Havruta Study: History, Benefits, and Enhancements. Notes from ATID, ERIC.